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5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행정체제혁신과	담당자	• 개편기획팀장 김예은 ☎ 440-3301 • 담당자 박은혜 ☎ 440-330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소통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힘 싣는다

-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 개최 ... 서구 찾아 주민설명회도 -
- 유 시장, “경쟁력 있는 도시 인천을 이끌, 전국 최초의 역사적 사례 될 것” 강조 -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일 시청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협의체’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별 맞춤형 소통을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 소통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및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그 동안 시민소통협의체 분과회의, 중·동·서구 의원 간담회,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역 의견수렴 과

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자치구의 명칭은 지역의 역사성, 문화, 전통성, 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로 제안했다. 특히 제물포구는 개항 이전 중구와 동구 일원을 통틀어 부르던 역사성과 대표성 있는 명칭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해 인천의 중심으로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계 획정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기준을 경계로 했다. 특히 주민 설명회 등에서 나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기존 입주업체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중구 제2청사, 검단출장소에 대한 부족 면적은 민간 건물을 임차할 계획이며, ▲재정 분야는 자주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합리적으로 배분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관계부서 협의, 연구용역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민선 8기 핵심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4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이번 개편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28년만에 자치구를 통합·조정, 신설하는 전국 최초의 역사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연계해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시민분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 회의 이후 유 시장은 서구 서부여성회관에서 약 2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을 만나 서구지역 행정체제개편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8기 역점시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경쟁력 있는 도시 인천을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을 대표하는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그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사진>



▲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협의체' 전체회의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5일 서구 서부여성회관에서 열린 '서구 분구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